

서울소재 6개 사립대학 미주지역 입시설명회

한양대학교 입학처

I. 미주지역 입시설명회 추진 배경

1.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해외 인재 유치

수시 전형 제도를 통하여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국내 대학 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조기유학생, 영주권자 자녀, 주재원 자녀 중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향후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즉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재원을 선발하고자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학들과 연합하여 우선적으로 미주지역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정확한 입시정보의 제공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해외에서 수학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입시 정보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였다. 더구나 중국, 동남아 지역 등과는 달리 미주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부정확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주지역 학생들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 뿐 아니라



각 대학별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전형 또는 국제화전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개별 상담을 통하여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시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II. 미주지역 입시설명회 내용

- 기간 : 2008. 3. 27(목) ~ 2008. 4. 4(금) 8박 9일
- 개최 도시 : 워싱턴, 뉴욕, LA
- 참가 대학 :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가나다순)
- 주관 교 : 한양대학교
- 참여 인원 : 13명

대학명	참가자명단
고려대	서태열(입학처장), 서진숙, 조명원(재외국민,국제학부 담당)
서강대	김영수(입학처장), 최진규(재외국민 담당)
성균관대	성재호(입학처장), 박정민(재외국민 및 홍보 담당)
이화여대	채기준(입학처장), 이소라(재외국민 담당)
중앙대	박상규(입학처장), 홍영훈(재외국민 담당)
한양대	차경준(입학처장), 한광민(재외국민 담당)

■ 세부일정

일시	일정	비고
3/27(목)	인천공항 출발	KE093
3/27(목)	워싱턴공항(IAO)도착(설명회 장소 답사)	현지시각
3/28(금)	입시설명회(한국과학재단 미국 사무소)	
3/29(토)	워싱턴 출발, 뉴욕 도착, 입시설명회(참좋은 교회)	DL1944
3/30(일)	뉴욕 소재 대학 탐방(콜롬비아, NYU)	
3/31(월)	뉴욕 출발, LA도착(설명회 장소 답사)	DL435
4/1(화)	입시설명회(LA 한국교육원)	
4/2(수)	LA소재 대학 탐방(UCLA), LA지역 동문회 참석	
4/3(목)	LA출발	KE018
4/4(금)	인천공항 도착	

Ⅲ. 각 지역별 입시설명회 스케치

1. 워싱턴 한국과학재단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워싱턴 델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내리던 비가 막 그쳤다. 긴 비행시간으로 인해 피로감도 겹쳤고 시차로 인한 졸음도 몰려왔지만 참아내고 호텔로 직행하여 짐을 풀고 곧 설명회 장소로 향했다.

28일에 있을 미주설명회의 첫 단추가 워싱턴이기에 사전에 장소를 답사하고 미진한 점 등을 미리 체크하여 대비해야 했기에 6개 대학 실무자 모두 아무 불평 없이 설명회 장소를 둘러 보면서 서로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나가며 역할분담 등을 논의했다.

드디어 설명회 당일! 어제 미리 준비해 댔기에 오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시내를 둘러보거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과 인근 뉴저지에는 좋은 고등학교가 많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 설명회에 대한 부담이 새삼 피부로 와 닿았다.

점심을 먹은 후 호텔에 들러 설명회장에 설치할 현수막과 자료집, 기타 준비물 등을 챙겨 한국과학재단으로 향했다. 설명회장 내부의 테이블, 의자 등을 다시 세팅하고 좌석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의자를 더 배치했다. 오후 5시 40분이 넘어서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기 시작했다. 보통 국내 입시설명회에서는 1시간 전부터 오는 경우도 많아 시작 직전까지도 빈 의자들로 가득한 설명회장을 보며 내심 걱정을 했으나 6시가 가까워지자 마치 정확히 6시에 맞춰 오기로 약속한 것처럼 설명회장이 거의 가득 찼다.

의자를 추가로 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 6개 대학이 차례로 입시설명회를 마친 후 대학별로 구역을 나누어 개별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 한양대학 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동문들 세분이 찾아오셨고 그 분들의 격려 속에서 무사히 첫 단추를 잘 꿰었구나 하는 안도감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2. 뉴욕 참좋은 교회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침도 먹지 않고 부지런히 레이건 공항으로 향했다. 8:30분 발 비행기를 타야 하기에 공항에서 샌드위치로 아침을 대신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10시 경 뉴욕 라구나디아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당연히 공항에 나와 있어야 할 가이드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다. 급하게 연락을 취해 보았는데 어이없게도 가이드는 엉뚱한 EWR 공항에 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토요일이라 교통량이 적어 버스는 1시간 정도 후에 공항에 도착하였지만 뭔가 출발부터 불안해 보였다. 가뜰이나 전날 뉴욕지역의 라디오 광고방송권이 꼬여서 심란하던 차에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축박한 일정 탓에 짐을 풀 시간도 없이 바로 설명회장인 참좋은 교회로 향했는데 한적한 외곽 지역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 설명회를 개최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장소라는 느낌을 받았다.

16:00에 시작하기로 한 설명회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그리 넓지 않은 교회인데도 참가인원이 너무 적어 모두들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하였고 개별 상담까지 예정시간 안에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처음 시도하는 미주지역 공동 입시설명회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위안도 해보았지만 주관 교라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떤 행사를 책임지고 준비,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고, 책임과 부담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준 뉴욕 설명회였다.

LA로 출발하기 전 일요일, 하루 일정상의 여유가 있어 이 지역의 대학을 탐방하고 시내 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오전에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을 방문하였는데 아무런 사전 준비 없는 방문이어서 단지 캠퍼스를 투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학생의 선발 방법 또는 대



학 홍보 등 안건을 정하여 그 곳 스태프들과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면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방문이 되었으리라는 생각과 만약 내년에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이런 점 등을 참고 하여 보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좀 더 알찬 입시 설명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LA 한국교육원

월요일부터 LA로 출발하기 위해 분주한 아침을 보냈다. 뉴욕 JFK공항에서 델타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자꾸만 미끄러지는 불편한 좌석과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 기내 서비스로 인해 피로감이 더해졌다. LA 국제공항(LAX)에 도착하여 가이드와 미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명회 장소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아무래도 뉴욕에서의 일이 일행 모두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남은 듯 LA에서는 심기일전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서로에게 느껴졌다.

한인타운이 위치한 Wilshire의 LA 한국교육원 강당을 찾았을 때 일단 설명회 장소에 대한 만족감에 모두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였다. 고정식 좌석이 설치된 200석 규모의 강당은 음향이나 조명, 빔 프로젝터 등 시설 면에서 이전의 워싱턴이나 뉴욕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고 위치도 한인타운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숙소인 Wil-

shire Plaza Hotel과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불과해 웬지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LA 설명회의 날이 밝았다. 이미 어제 모든 점검을 마쳤기에 일행들은 산타모니카 해변을 거닐며 긴장을 푼 후 UCLA를 방문하여 대학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텔로 돌아와 다시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친 6개 대학 차장과 실무진은 LA 한국교육원으로 향했다. 행사장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책자를 배부할 데스크를 배치하고 개별상담을 할 장소에 대한 세팅을 하느라 분주하게 2시간을 보냈다. LA지역 한인 방송국에서 나와 녹화와 각 대학 입학처장들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로비는 북적거렸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설명회 방문객들로 인하여 상황을 이루었다. 각 대학 동문들도 경쟁적으로 찾아와 모

교의 관계자들을 찾아 서로 인사나누기에 바쁜 와중에 공식적인 설명회가 시작되었고 200석의 강당은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꽉 차 급히 보조의자를 구해 추가로 통로에 배치를 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각 대학별로 가진 개별 상담시간에는 밀려드는 상담자들로 인하여 실무자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상담에 임했고 정해진 시간을 훨씬 초과하면서까지 성심껏 상담을 진행했다. 입안은 까칠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상황리에 치러진 행사에 모두들 흡족한 표정이 역력했다. 9시가 넘어서 저녁 식사를 가질 정도로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각 대학의 동문 관계자들도 뜻밖의 뜨거운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요일은 공식적인 일정이 전혀 없는 자유의 날이었다. 우리는 오후까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광을 마친 후 다른 대학 일행들과 헤어져 LA지역 한양대 동문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6개 대학 일행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아쉬움에 서로를 찾아 호텔 로비에 모였고 로비에서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금번 행사에 대한 소감과 아쉬움, 뿌듯함 등 만감이 교차한 감정을 서로 나누면서 미주지역 공동 입시설명회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IV. 주요 상담내용 및 요구사항

1. 재외국민 특별전형 및 글로벌전형, 국제학부 전형 지원 자격 충족여부

개별 상담을 통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이다. 각 대학별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심사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되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글로벌 전형 또는 국제학부 전형 등에 관해서는 지원 자격 뿐 아니라 SAT 성적의 반영여부, 토익, 토플 등의

최저 지원가능 점수 문의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또한 교민 자녀로서 지원하였을 경우 입학에 있어서 특전 또는 가산점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2. 국내 대학의 학비 수준과 기숙사 입사 가능 여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은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주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년 3만 불 이상의 학자금이 소요되기에 국내 대학의 학비에 대해 궁금해 했고 년간 등록금 수준을 알려줬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에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 국내에 연고가 없는 이유로 자녀들의 기숙사 입사를 원하였고 국내 대학의 실정상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금번 행사를 통하여 지방학생이나 국외 출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느꼈다.

V. 성과와 과제

금번 6개 대학 공동 미주지역 입시설명회는 이전에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기획이었다. 개별 대학 단독으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치러진 행사는 이전에도 간혹 있었으나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입학처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지리적으로 먼 미주지역까지 가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사였던 것이다.

국내에서의 큰 관심 속에 떠난 일행은 또한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현지에서의 모든 준비를 간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제약 때문에 사전에 모든 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가



뉴욕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여준 입시 설명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이자 추후 더욱 문제점을 보완하여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지게 됐다.

1년에 4~5만 불 가까운 미국 대학의 학비에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은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에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수학함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좀 더 넓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향후 진로에 좀 더 폭넓은 선택의 폭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학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이고 또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